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축산농가에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고창군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고창군에선 올해 이번 폭염으로 관내 25농가에서 1만7,000수의 축산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총 1억7000만원(군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가금 및 양돈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 160농가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1만2,564포를 공급할 계획이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는 고온환경에서 가축의 체온상승을 억제하고 사료섭취 저하 및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각 축산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재해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행안면 · 상서면

‘농촌왕진버스’ 운영

부안군은 13일 행안면다목적체육센터에서 행안면 · 상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남부안 · 계화농협과의 두 번의 성황리 운행에 이어 진행된 이번 3회차 농촌왕진버스는 행안면 · 상서면 지역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날 현장에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점 등 3개 전문 기관의 의료진과 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정읍시, 기존 18개→25개 항목으로 확대... 4주 이상 상해 시 진단 위로금 지급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휴양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 · 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 · 화재 · 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 · 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 · 화재 ·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휴양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

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보험 접수 · 상담처(☎02-785-9611)나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평년 66%에 그친 비... 정읍시, 장기 가뭄 대응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억원 긴급 투입... 가뭄에 농가 피해 막고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정읍시가 장기 가뭄으로부터 농작물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8월 13일 기준 정읍지역 누적 강수량은 528mm로 평년의 66.3%에 그쳤다. 지역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30.6%로 나타나 가뭄이 깊어지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저수율 변화를 살피며 비상 용

수 공급계획을 세우고, 농업인들이 차질 없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이물질을 걷어내 물길을 확보한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을 서둘러 마쳐 농작물 생육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

을 미리 막을 방침이다. 읍 · 면 · 동별 강수량과 저수율, 농업용수 공급 상황도 지속해서 살피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용수원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감염목 발생지 반경 2km 이내 28개 행정리 대상...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보안면 부곡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보안면 부곡리, 월천리, 상림리, 하임석리와 주산면 소주리, 갈촌리, 소산리, 동정리 등 총 8개 행정리이다. 이로써 부안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총 28개 행정리, 면적 6,369ha로 확대됐다.

부안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향후 2주간 반출금지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현장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은 단순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방주사 시공 및 생활권 고사목 제거를 지속해 왔으며, 예찰 · 방제단을 상시 가동해 소나무류 취급 ·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소나무류(임목 · 원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훈증 처리 및 더미의 훼손 ·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정 부안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반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잃어지고 붉게 말라죽는 소나무(의심목)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안군청 산림정원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인력 유치 나서

고창군, 베트남 라이쩌우성 · 선리성 방문... 현지 실무협의 진행

고창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지역 찾기에 나섰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10~14일(3박5일간)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선리성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송출지역 발굴을 위한 현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출장에는 고창군 농업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흥덕농협 관계자 등 5명이 동행했다.

현재 고창군 MOU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약 65%가 베트남 출신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송출지역에 집중돼 있다. 군은 농

번기 인력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출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지역을 찾고 있다.

출장단은 베트남 북서부에 위치한 ‘라이쩌우성’과 ‘선리성 내무국’을 차례로 방문해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 소재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입국 전 교육과정과 운영체계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고창군 농업현장에 적합한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4060 갭년기,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정읍시보건소, 참여자 20명 선착순 모집

정읍시보건소가 갭년기로 인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4060 갭년기 건강교실’ 3기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갭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에 관심 있는 40~60대 지역 주민이며,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건강교실은 9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월 · 수 · 목요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갭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운동과 마음 치유 활동을 함께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활력을 높이는 기호환 체조와 건강체조를 배운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원예치료와 향기요법, 차 문화 체험 등도 진행된다.

보건소는 건강교실 시작 전과 종료 후 갭년기 자가진단과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를 통해 참여자별 증상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갭년기 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시설 19곳 불시점검... 위반 흔적 없어

정읍시가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지역 내 관련 사업장 19곳을 야간에 불시점검한 결과 위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됐다. 시는 4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가축분뇨 배출시설 3곳과 재활용시설 16곳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야간에 가축분

뇨를 몰래 흘려보내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중호우 때 빗물에 섞여 분뇨를 방류할 우려가 있고 낮 시간대 점검만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야간 불시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증거 확보 장비를 활용해 방류구 주변의 물빛과 흐름 정도, 냄새와 무단방류 흔적을 확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자연

전주매일 캠페인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팔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팔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